



책 속의 밑줄 긋기

“괴로워하는 것도 남 탓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주인공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모두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즉, 남 탓하며 괴로워하는 인생은 타인이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므로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심직설〉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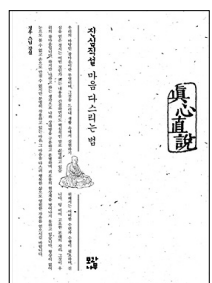
상대방이 나를 욕 하면 함께 화를 내며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욕을 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참을 수 있어요?’ 하면서 당연히 화를 내야 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아! 내가 욕하는 소리를 듣고 화를 일으켰구나’ 하고 살피는 것과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살피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상대방의 감정에 따라 내 감정은 휩쓸려 따라다닙니다. 〈진심직설〉중에서

# Books

## “무심, 마음 가운데 아무 것도 없는 것”

### 진심직설

정우 스님 지음 | 모과나무 펴냄 | 2만 5천원



〈진심직설〉은 〈수심결〉과 함께 보조 지눌 스님의 대표적 저술이다. 선불교의 기본 바탕인 우리 본래의 마음, 즉 진심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한다. 여타의 선어록이나 선서는 선사들의 깨달음의 순간이나 가르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진심직설〉은 마음에 대해 체계적이면서 자세히 전부를 다룬다. 그래서 다른 선어록과 다르며 선서의 백미(白眉)라 불린다.

고 거기에 답하는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는 지눌 선사의 독특한 저술법이다. 먼저 참마음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무엇을 ‘참마음’이라 하며 또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왜 그렇게 불리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참마음의 본 바탕과 그 작용에 대해서 살핀 다음, 참마음은 사람마다 갖추는데 범부와 성인으로 나누는 것은 미혹한 번뇌 망상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번뇌 망상을 쉬는 마음다스리는 법 열 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마음다스

로 명쾌하게 강설했다.

지눌 선사가 살던 고려말의 불교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안으로는 선종과 교종이 극심히 대립해 싸웠고, 밖으로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쓸려 승려의 기강은 해이해지고 불교는 타락했다. 지눌 선사는 화엄론에 기초해 선과 교가 둘이 아님을 확언하고 “부처가 입으로 말한 것이 교요, 조사가 마음에 전한 것이 선”이라며 선교회통(禪敎會通)과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장했다. 그리고 타락한 고려불교를 정법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선종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에 평생을 진력했다. 이러한 지눌 선사의 정혜쌍수와 선교일치 사상이 〈진심직설〉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선과 교가 극심히 대립하고 있을 때 선교일치의 관점에서 마음 공부를 정리했고, 선종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참마음을 깨치고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진심직설〉, 지눌 선사 대표적 저술

### 마음 정의와 작용, 완성 경지 서술

### 마음관련 모든 것 문답식 전개 특징

리는 법은 가고 오며 앉고 누워서도 가능한 공부라며, 이 공부와 더불어 남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을 함께 닦을 것을 권한다. 그리고 참마음을 깨쳐 얻는 공덕에 대해 자세히 열거했으며, 참마음이 성숙해 걸림이 없는 것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마지막에는 중생들은 업을 따라 윤회하지만 참마음을 깨치면 어디로 가는지 설명하고 있다. 포리에 포리를 무는 방식으로 마음에 대해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정리한 것을 정우 스님은 다시 수행의 경험을 바탕

으로 명쾌하게 강설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다스리기는 마음을 살피기, 알아차리기를 통해 망상을 내려놓는 마음 공부와 더불어 봉사활동을 통한 이타행을 실천하는 것을 권한다. 지눌 선사가 〈진심직설〉서 제인하는 “망상을 쉬는 공부” 열 가지는 현대인을 위한 ‘마음 다스리는 법’이 된다. 이 가운데 자기한테 맞는 한 가지를 선택해 꾸준히 실천하면 ‘참마음’을 깨칠 수 있다고 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저자 동암 정우 스님은?

정우 스님은 철우태주(1895-1979) 선사를 은사로 1960년에 출가해 법을 이었다. 당대 대강행인 청암사 우봉 스님, 강교봉 스님, 통도사 호경 스님, 상주 남장사 훈해 스님으로부터 사지, 사교, 대교과를 졸업했다. 이후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수료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국장, 교무국장, 포교국장을 거쳐 조계종 중앙총회 11대, 12대 총회위원을 역임했다. 지금은 구미 금강사 화주 소임을 맡으면서 다양한 포교 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범어사, 불국사, 봉암사, 해인사, 송광사, 상원사, 청암사 수도암, 칠불암, 정혜사, 망월사, 통도사, 태안사, 화엄사, 벽송사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수행으로 인거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 강설집 〈선기귀암〉이 있다.

## 신라천년 도읍지는 삼신산 중 하나인 지리산에 있었을까?

### 에덴 동산에 신라 궁궐이 있었다

정암 지음 | 자유문고 펴냄 | 1만 5천원



“신라 천년의 도읍지는 삼신산의 하나인 지리산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각종 옛 기록과 비문, 지형 등을 토대로 지리산 일대가 신라의 수도였으

었다고 했다.

또한 〈열전〉에 최치원이 중국서 귀국할 때 중국인 고운(顧雲)이 이어준 송별시가 신라에 있으며 삼신산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즉 금오산 곁에 곁에 곁에 있다는 사실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삼신산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자라 형상의 금오산, 닭이 화를 치고 있는 형상의 계림, 여성의 생식기가 활짝 벌어져 있는 여근곡(女根谷) 등이 지리산의 서남단, 구례군 일대에 선명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며, 화엄사가 황룡사임을 고증해내는 등 우리 고대사의 새로운 진실을 밝혀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상고사와 고대사는 미개척 분야이다. 수많은 학설들이, 추론들이, 상상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 간의 간극은 전혀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한마디로 우리 고대 역사는 미궁 속에 빠져 있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고사나 고대사를 시원하게 밝혀줄 기록의 부재, 거기에 덧붙여진 중국 중심의 기록과 관점, 게다가 역사학계의 주류를 점하고 있는 식민사관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색다른 시도

### 왜곡되거나 농친 역사 진실 쫓아

하지만 기록과 흔적의 조각들을 맞춰가다 보면, 우리 민족의 찬란하고 위대했던 역사와 마주하게 된다. 이 책도 그런 시도 중의 하나이다. 왜곡되거나, 혹은 농쳐버린 역사의 진실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옛 기록과 지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검증해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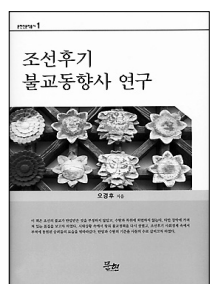
또한 구약성서 창세기의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는 구절에서 동방은 우리를 가리키고, 이곳을 해 뜨는 지역인 양곡(陽谷)이라고도 한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고조선과 신라의 도읍지가 있었던 신성구역임을 밝힌다. 한편 고려시대 몽고군에 의해 소실되어 폐사된 황룡사와 황룡사탑에 관해서, 화엄사에 소장된 〈화엄사 사적〉과 서산대사가 지은 비문을 통해 지리산 화엄사가 황룡사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처럼 이 책은 추상적 주장에 머물지 않고 명확한 주제를 정해, 그 근거를 토대로 베일에 가려진 한국사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

김주일 기자

## 장막에 가려진 조선후기 불교정책과 동향 파헤쳐

### 조선후기 불교동향사 연구

오경후 지음 | 문헌 펴냄 | 2만8천원



“조선의 불교는 탄압, 수탈과 착취로 규정되었고 인식되었다. 실록속의 왕과 신료의 말 한마디로 불교는 이단의 종교가 됐고, 승려는 천하에 쓸모없는 불한

당이 되었다. 그리고 사찰은 나라 경제를 쪼먹는 소굴이었으며, 풍기문란의 온상이었다.”

불교사학자 오경후 박사(동국대 불교학술원)가 최근 〈조선후기 불교동향사 연구〉라는 책을 출간했다. 현재 한국불교의 현주소가 앞서 언급한 조선후기 불교의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오 박사의 저서는 출간 직후 불교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오 박사는 “역사서술이 전하는 바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장막에 가려진 진실을 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이 책을 크게 조선후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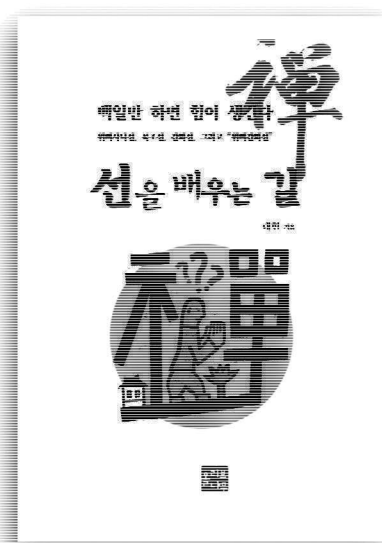
전란과 더불어 조선이 반환점을 돌기 시작한 선조와 조선후기 대표적인 불교단암의 군주인 현종의 불교정책을 통해 불교가 지닌 종교적 가치와 불교계의 기여를 살폈다.

또한 불교탄압에 대한 백곡 처능의 대응론도 다뤘다. 백곡은 〈간폐서교소〉라는 상소문에 불교 교리에 대한 비판이 지닌 모순을 질타했고, 승려에 대한 혹독한 부여노동을 완화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불교계의 동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불교 탄압에 대한 대응론과 승려의 부역동원, 그리고 사찰의 수적 증감 등 세 부분이다. 종교적 가치와 불교의 국가사회적 기여는 탄압의 원인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저자 오경후 박사는 동국대 대학원 석사(조선후기 승전과 사지편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재)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냈으며,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김주일 기자

## 백일만 하면 힘이 생긴다!



\* 대현 지음 / 302쪽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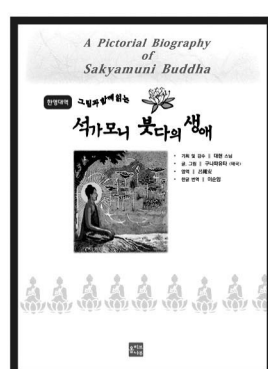
천근만근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 솟아오른 해가 천지를 환히 비추는 것 같은 충만한 존재감, 나와 나의 경계가 일시에 사라져 버리는 대자유함, 그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선수행의 길라잡이.

‘고요히 비움’을 바탕으로 삼고(獨坐), ‘알아차림’으로 마음이 들뜸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위빠사나), “이 뭐고?” 하고 회두를 쟁기으로써(간화선) 산만한 마음을 강한 집중으로 삼매에 들게 하여 무명번뇌를 조복시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것이 위빠사나 수행의 장점과 사마타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다.

간화선 수행법은 남의 나라를 침공할 때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생포하여 항복을 받은 다음 그 나라의 군대와 백성을 조복 받는 것처럼 속전속결의 법이다. 위빠사나 수행법은 작전을 펴서 적의 군대를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여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붙잡아 항복시키는 것과 같다.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을 병행하는 법은, 처음엔 적의 군대를 작전을 펴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로 쳐들어와서 왕을 생포해 항복을 받는 경우와 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 선승의 길

\* 대현 스님 지음 / 280쪽 / 값 12,000원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의 수행기와 바른 참선법.

전강, 향곡, 경봉, 성철, 송담, 진제 스님 등 선지식을 읽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공부 농사에 영양분을 공급 받았던 내력과 함께 간화선 수행자들이 범하기 쉬운 병통을 지적하고 심우도에 따라 기초공사를 다져 하루종일 화두와 함께 가고 오고 행하는 길을 가리켜 보인다.

한영대역판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산청 정각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440-28

010-9772-4588  
055) 972-1109



우리보리나무 울리브나무 전화 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